

민족간 갈등과 종말 시기

신학박사 조 덕운

[마가복음 13:4-8]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5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7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투 행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그 여파로 세계의 여론이 둘로 나뉘었고 경제적 영향, 특히 유가 급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궁금해 했던 제자들에게 주 예수님은 위와 같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쟁들과 민족간, 국가간 갈등의 빈도가 20 세기와 21 세기에 급등한 것에 주목하고, 우리는 지금 “고통의 시작” 즉 “종말 고난의 시기의 시작”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문선명을 비롯하여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인 사실은 6 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바와 같이 성취된 일들입니다. 다음으로 7 절의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에 관하여는 20 세기에 총 29 건의 전쟁이 있었고, 21 세기만 해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벌써 8 건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잦은 전쟁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도 성취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8 절의 예언,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민족간의 갈등은 과거 여러 세기에 걸쳐서 여러 형태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1 세기에 들어서 그 갈등이 표면화 되고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민족간 갈등의 한 형태는 인종간 갈등입니다. 미국에서 흑백간 갈등이 있어 왔으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소위 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흑인 계층의 경제 사회적 지위 보장 및 향상책이 법제화, 정책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2020 년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폭발한 소위 “Black Lives Matter (BLM)” 운동의 확산 및 정치 세력화를 들 수 있습니다. BLM 운동의 지도 계층은 전문적인 공산주의 훈련을 받은 혁명주의자들로서 미국 사회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약칭 중공)이 미국과 전 세계에 제시하는 도전은 중국 민족 대 서구 민족, 즉 백인이 주축인 서구 세계의 갈등 구조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화합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세계의 최고 리더 그룹으로 중국 민족의 우월적 위치를 쟁취하기 위하여 비합법적, 비 인도적, 그리고 폭력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 계획들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절시키겠다고 공언하는 이란과 이들이 지원하는 반-이스라엘 세력은 이슬람 대 유대인의 민족간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종말의 시기에 세계의 이벤트들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 즉 슬라브 민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로 인한 갈등 구조가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 정부는 지극히 부패한 소수의 마피아적 파워 그룹이 지배하는 나라로서, 과거에 나치 독일에 협력하여 다수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전철을 버리지 않고 크림 반도와 돈바스 지역 및 러시아와의 경계선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슬라브 민족에 대하여 무지비한 학살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군사적 개입의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학살의 근절 및 응징입니다. 그럼에도 서구의 다수 언론과 정권들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대의 인종 학살 행위를 비판하고 응징하기는 커녕 오히려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에 대하여 응징하고 있습니다. 1998 년에 코소보의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하던 유고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코소보 전쟁’은 국제 사회와 특히 미군이 이러한 인종 학살 행위를 근절시키지 위해 벌인 ‘의로운 전쟁 행위’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서구 사회가 갖는 태도는 비합리적입니다. 이것은 서구 국가들이 갖는 슬라브 민족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민족간 갈등이 같은 크리스찬들 간의 갈등이어서 신앙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신앙의 형제들 간에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정치, 군사적 갈등을 초래한다면 그들이 가진 신앙은 참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아 신앙의 형제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서로 사랑을 베푸는 국제 정치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근, 지진, 각종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건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종말 시기의 시작 전에 발생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후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종말 시기의 진입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타당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미국-러시아간 핵전쟁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약 교회는 휴거되어 고난을 피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징후들이 우리가 지금 처한 시점을 가리키는 지시기임으로 마지막 고난의 시기 (Tribulation Period)의 시작이 임박했음을 가리킴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될 소망을 굳게 지니고,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하여 그들도 구원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 왕국에 갈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